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7.29.(수)

태평양 넘어 브라질로, 글로벌 공급망 돌파구를 열다

- 경제인행사 개최, 희토류 등 핵심광물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
한-메 TA 진전 등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며 총 7건의 민간 MOU를 체결하고, 「한-브 핵심·전략광물 협력 공동성명」에 합의·발표하는 한편,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와 산업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경제외교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1.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 가속화

현지 시각 7월 29일(수)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rade Agreement, TA) 협상 재개를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통상교섭본부장-메르코수르 4개국 간 개별 통상장관 회의 및 양측 수석대표 회의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TA 진전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TA 추진 가속화에 합의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더불어 양측은 5년 이상 중단되었던 TA 협상의 원활한 재개 및 타결 가속화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 수출품목의 시장진출 기회 모색, 시장개방 민감성 분석, 주요쟁점 관련 이해도 제고 등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 타결 가속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2. 한-브 핵심·전략광물 공동성명 발표 및 광업에너지부 장관 면담

김정관 장관은 금번 정상순방 계기(7.27, 브라질리아)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알렉산드르 실베이라(Alexandre Silveira)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양국 간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번 공동성명은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의 협력 방향을 공동문서로 명시한 최초의 사례로, 세계 2위 희토류가 매장된 브라질과 광물자원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특히 그간 기업 차원의 프로젝트를 정부 간 협력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브라질 핵심·전략광물 분야 참여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팀코리아’ 협력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한편, 공동선언문에는 양국이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디지털 전환과 첨단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회복력 있고 다변화된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희토류를 대표적인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현지 가공·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과 연구개발(R&D), ▲책임있는 광업, ▲인력양성, ▲중·하류 부문 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전반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양국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김정관 장관은 실베이라 광업에너지부 장관을 올해 중 방한하여 금번 정상회담 성과 이행 및 민간 협력 지원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실베이라 장관도 흔쾌히 동의하였다. 한편 금번 정상 국민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살려, 향후 기술교류와 연구개발, 기업 투자 및 프로젝트 연계 등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브라질의 광물산업 고부가가치화와 한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함께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 브라질 순방 계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칼데이라(Caldeira)에서 희토류를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Meteoric Resources社와 중희토류 오프테이크 및 금융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7.28, 상파울루)하였다. 동 MOU 서명식에 임석한 김정관 장관은 양사와 별도로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추진 중인 「글로벌 희토류-영구자석 공급망」 구축 현황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희토류 조달 기반 확보 및 향후 사업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한편, 금번 Meteoric Resources社와의

MOU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향후 현지 인허가, 투자여건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및 MOU 체결식 개최

산업통상부는 현지 시각 7월 28일(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리 정상 및 양국 정부 관계자, 경제인 등 4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는 첨단기술, 제조, 바이오, 자원, 소비재, 문화 등 유망 분야를 선도하는 우리 주요 기업 15개사*가 참석하였다.

* 삼성, 현대, SK, 포스코 HD현대, 한화, LS, KAI, CJ,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

참석자들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전 세계적인 자원 부족이자 중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과 첨단 제조업 역량을 보유한 한국 간의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양국 경제계 대표와 기업인들은 ▲첨단기술·바이오, ▲자원·제조, ▲소비재·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 계획을 공유하였다.

끝이어 양국 장관 임석 하에 MOU 체결식을 열고 ▲공동 산업기술 R&D협력MOU(韓KIAT-브EMBRAPII, 韓KIAT-브Finep), ▲수출·투자협력MOU(韓KOTRA-브APEX Brazil), ▲AI기반 뇌전증 치료혁신 및 디지털헬스 협력 MOU(韓SK바이오팜-브EuroFarma), ▲육류 공급망 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MOU(韓하이랜드푸드-브JBS S.A.), ▲민항기 및 항공우주협력 MOU(韓KAI-브Embraer) 등 총 6건의 MOU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성장기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특히 AI 기반 산업 협력 모색과 화장품 등 소비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4. 한-브라질 산업기술협력 MOU 서명 및 산업부장관 면담

현지 시각 7월 27일(월)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에 임석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루시아나 산토스(Luciana Santos) 장관과 「한-브라질 산업기술협력 MOU」에 정식 서명하였다. 동 MOU는 전통적인 교역을 넘어 공급망·첨단산업·바이오 등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상호호혜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향후 실무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가속화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MDIC) 엘리아스 호자 장관(7.28, 상파울루)과의 별도 양자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브라질은 한국의 남미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우리기업들은 자동차·가전·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브라질 현지에 진출, 양국 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양국 장관은 지난 2월 체결된 한-브라질 무역생산통합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김정관 장관은 철강 관세·수입쿼터, 현지 행정·제도 운영상 제약, 인프라 미비 등 우리 진출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동섭 (044-203-5630)
	중남미대양주통상팀	담당자	사무관	김하은 (044-203-5634)
	자원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기 (044-203-5240)
	자원안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246)
	자원산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장민재 (044-203-5259)
	광물자원팀	담당자	사무관	윤가영 (044-203-5258)
	통상협정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선애 (02-2100-1370)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담당자	서기관	모덕춘 (044-203-5751)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장미연 (044-203-4530)
	산업기술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4-203-4505)